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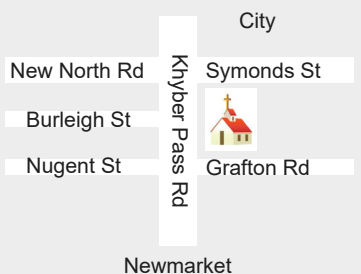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4남여 선교 회원을 위한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4주간 주일 예배 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장소:느헤미야 실).
2. 금요 저녁 기도회가 오는 9일 (금)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3.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성탄 맞이에 관하여 의논하기 바랍니다.
4. 유아실과 아동부실 에어컨을 은퇴 장로님들과 교육부장 박병민 장로님이 기증하였습니다.
5. 그동안 청년부를 사역한 박태신 목사님이 다음 주로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오uckland 오라토리오 코랄 주최 제 4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있습니다(장소: Holy Trinity Cathedral Parnell, 일시: 11월 10일, 토요일 7시 30분, 티켓 \$30, 문의: 정혜숙 권사).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다만 오늘 하루 순종하며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는 것이다.

2018년 11월 4일 주일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00: 4-5
◎ 찬 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대 표 기 도	정관영 장로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8:28-34
찬양대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신앙인이 직면하는 유혹/ 이태한 목사
찬 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사역

11월 9일(금요일): 저녁기도회
 11월 24일(토요일): 새가족 환영회
 11월 25일(주일) 권사기도회
 11월 28일(수요일): 선교회 주관 예배(4여성교회)

11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이옥화 집사
 다음 주일: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서지현 자매
 11월 14일 수요: 정희자 권사
 11월 14일 애찬: 임태원 집사
 11월 18일 주일: 이규임 권사
 11월 18일 청년부: 전한걸 자매

11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이광희/김순자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 도 정혜숙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6:34
 설 교 한 날의 괴로움 /이태한목사
 찬 송 369장
 주 기 도 다같이

기도 : 이에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며 열심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주님의 능력으로 환란이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대회 때 여러분의 교회 이태한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던 남아국 김현태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 선교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이번에 약 4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놓고 출국 열흘 전에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두 번씩이나 병원에 갈 때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이 나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 진통제 주사를 놓아 주는 것과 진통제 알약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절뚝거리며 기내에 들어서는데 왜 그렇게 서글프든지요?

하나님 아무런 계획 없이 들어옵니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대하마” 곧바로 마음에 평안이 물밀 듯 밀려왔습니다. 그간 40일의 여정을 쉽 없이 소화하며 분주히 다녔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도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에서 보내 주시는 여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 덕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또 몇 년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돌아오니 왜 그렇게 장례가 많은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장 카운슬러, 루안다가(44) 총에 맞아 죽어 그에게 장례를 치렀고 교회 유스 슈지(21)가 에이즈 합병증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오자마자 무더운 날씨에다 장례와 교통사고가 난 성도 프리실라 사고 처리로 분주하고 또 교육관 2층 건물 허가 문제로 설계사 윌리엄을 만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듣고 알맞은 건축자를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과 특별히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갈보리 성도들의 생업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 내도록.
2.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